

## 과기정통부, 지능형 업무환경 전환(AX) 가속화

- 부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자산화 등 인공지능(AI) 활용 기반 마련
- 특화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AI 에이전트 및 활용 플랫폼 개발·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지능형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내부 행정 업무의 효율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AI기반 특화행정서비스 구축(AI-NEXT\*)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AI-New Era eXcellence in Technology(새로운 시대의 기술 우수성을 구현한 AI 플랫폼)

최근 과기정통부는 조달청을 통해 ‘AI-NEXT’ 사업을 발주하고 부처 내 업무의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기반 구축 및 시범 서비스 적용 등을 거쳐 향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AI 활용을 위해 선행적으로 필요한 부처 내에 분산된 문서·데이터를 통합·자산화하고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등을 적용하여 AI의 정확성과 실효성 있는 데이터 검색·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이용해 부처 내의 공통적이거나 특화된 업무에 활용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우선적으로 개발·서비스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성을 혁신한다.

우선적으로 개발·활용 예정인 AI 에이전트로는 무선국 허가검사, 전자과 인증, 예산 및 국회자료, 기사스크랩 분석 등의 업무 분야이다.

아울러, 생성·추론 등 기본적인 기능은 범정부 AI 공통 기반(플랫폼)에 마련되어 있는 거대언어모델(LLM),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의 기존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플랫폼 체계로 구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AI 기반 협업도구를 선도적으로 도입·활용하는 부처로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빠르게 검색·공유, 각종 취합 문서의 공동 편집·작성 및 내부 소통·보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내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기획조정실장은 “어느 때보다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환경에서 인공지능 전환(AI)은 공공 행정 업무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과제다.” 고 강조하며,

“특히, 과기정통부는 AI와 과학기술 총괄부처로서 선도적으로 AI를 도입·적용함으로써 지능형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다른 부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책임자	과 장	장기동 (044-202-4470)
		담당자	주무관	최윤조 (044-202-4479)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 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능책브리핑

